

# 石油 수요 감소가 產油國에 미치는 영향

## 1. 머리말

지난 5월 4~9일에 第3次 아랍에너지 회의가 알제리에서 개최되었다. 本會議의 성격상 아랍세계의 에너지가격, 생산수준,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정치관계 등의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아랍권의 에너지수요 증가, 經濟開發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어 종전보다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의에는 9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옥스포드 에너지연구소의 R. Mabro 박사의 「에너지 需要減少가 아랍세계에 미치는 經濟的影響」을 요약코자 한다.

## 2. 70년대의 石油販賣收益 증대가 產油國에 미친 영향

최근 수년간에 이룩된 아랍지역의 경제발전은 석

유 자원에 크게 의존한다. 73/74, 79/80年の 油價 상승 및 석유수익 증대는 아랍지역의 석유 輸出國 및 非產油國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석유수출국들은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부 페르시아灣 산유국과 리비아 등은 높은 所得을 享有했고, 그들의 사회특성 및 경제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석유수출국의 경제는 輸入指向的인 구조로 변화되었고, 서비스 부문이 확장되었는가 하면 농·어업, 手工業, 소규모 무역업 등의 전통적인 경제 활동이 거의 소멸되어 버렸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에너지加工산업이나 金屬산업과 같은 重工業부문에, 그리고 수송, 전신 등의 사회간접 자본 및 교육·厚生施設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 또 임금정책, 이자율정책 등의 다양한 소득분배 장치를 통해서 정부의 收入이 민간부문으로 濫過되었으며, 높은 所得을 향유한 국민들의 의식구조 및 사회적 행태도 선진국형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이

產油量 및 石油收入 실적

(單位：千b/d, 백만달러)

	產 油 量			石 油 收 入		
	1970	1980	1984	1970	1980	1984
알 제 리	1,029	1,019	638	272	12,500	—
이 라 크	1,548	2,646	1,203	521	26,100	—
쿠 웨 이 트	2,989	1,663	1,117	821	17,900	—
리 비 아	3,318	1,830	1,071	1,351	22,600	—
카 타 르	362	471	399	122	4,914	—
사 우 디	3,799	9,900	4,649	1,214	102,212	—
U A E	779	1,701	1,155	233	19,500	—
아랍OPEC計	13,824	19,230	10,232	4,534	205,726	97,500*

註：\* 추정치

〈資料〉 Middle East Economic Survey.

같은 변화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 의견 대립 등의 逆효과도 발생하였다.

한편 산유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이들과 밀접한 경제적 紐帶關係를 맺고 있는 인접한 비산유국들도 노동移住, 항공수송, 직접투자, 무역 등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 3. 石油수요감소와 OPEC역할의 한계

70년대가 가격과동의 시기라면 80년대는 수요과동의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세계석유시장에서 OPEC가 殘餘供給者(residual produ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세계수요의 변동은 직접 OPEC에 영향을 미쳐왔다.

1970년대 초까지 OPEC의 산유량 및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나 회원국들은 크나큰 富를 향유하긴 했으나, 막대한 자금이 국내에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해외에 유출되는 逆효과가 발생했다.

1980년대 들어 세계石油市場은 크게 변화되었다. 高에너지가격 및 세계 경제의 침체로 주요 OECD 제국들이 에너지절약 및 代替에너지 개발에 힘써 에너지 공급구조가 변화되었고, 非OPEC 산유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OPEC산유량은 1979년의 30~31百萬b/d에서 1984/85년에는 16~17백만b/d로, 동기간 주요 아랍諸國의 산유량은 21백

만b/d에서 10백만b/d로 減少되었다. 이같은 여파로 產油國의 경제는 침체되었고, 1980년대 말까지도 수요감소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OPEC은 이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아랍 제국을 비롯한 대다수 OPEC 회원국들의 국내자원 및 經濟構造가 지극히 불균형 상태에 있어 경제개발에 장시간이 필요한 데, 70年代의 무분별한 증산정책은 장기경제개발을, 그리고 80년대의 감산정책은 短期경제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분명 OPEC의 殘餘供給者로서의 역할 때문에 발생하였다. OPEC은 혼자의 힘으로 그들의 개발목표에 일치하는 最適生産수준의 결정이 불가능했으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생산을 유포하는 현명한 가격정책을 택하지 않아 需要관리에도 실패했다.

### 4. 수요감소가 미치는 유리한 영향

產油國 정부일각에서는 石油販賣量 감소에 대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生産可能期間이 길어지고 낭비가 준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祝福」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위기의 정도가 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석유수요 및 수출감소로 인해 산유국들은

石油收入 전망<sup>1)</sup>

	1985	1988	1990	1992	2000
產油量(백만B/D)	10.60	11.00	12.00	13.50	17.55
國內消費(백만B/D)	1.16	1.27	1.35	1.46	2.00
輸出(백만B/D)	9.44	9.73	10.65	12.04	15.55
油價(\$/b) <sup>2)</sup>	27.5	25.0	26.0	27.5	40.0
總收入(백만달러) <sup>3)</sup>	94.75	88.8	101.0	120.8	227.0

註：1) 7개 아랍 OPEC 회원국임.

2) 1985년 불변가격 기준임.

3) 수익=수출×365×유가

4) 소비추정：세계 1차에너지 소비증가율 1985~2000 기간에 연간 2.0~2.4%로 가정함.

5) 유가추정：1985년 불변가격으로 1988/89년에까지 약간 하락, 1992년까지 85년 수준으로 복귀,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에 40~45달러에 이를 것으로 가정함.

6) 산유량 추정：1985~1990 기간에 소폭증가, 이후 크게 늘어날 것이나 2000년에도 18.0백만B/D에 는 미달할 것으로 추정함.

〈資料〉 Middle East Economic Survey.

자신들의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생산수준을 최적화할 수 있으나, 최근의 사태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일관된 정책代案이 없다면 최적생산수준이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 OPEC 산유량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고, 80년대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石油收益이 감소되어 1970년대와 같이 지나친 낭비, 경제적 비효율성, 국민계층간의 위화감등이 사라질 수 있으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제개발의 목적은 소득증대를 통해서 현재의 소비수준을,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未來의 기대소비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산유국 기존의 석유경제에서 보다 質的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장기적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培養해야 한다.

이같은 점에서 다음의 諸問題는 石油販賣量 감소를 통해 사라질 것으로 보여 產油國 경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정부당국이나 여타의 意思決定機關이 개발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投資支出이 상당량에 달했다. 이러한 점에서 石油收入 감소가 동일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원을 枯渴시키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산유량을 감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둘째, 정부의 과도한 소비지출 문제로서, 대다수 아랍산유국들은 지나친 국방예산, 불필요한 雇傭擴大, 대규모 補助金, 無利子 대출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늘려왔는데, 산유량 감산을 통해 이들 비용을 줄이는 것은 유리하다.

셋째, 課稅政策, 價格政策, 利子率政策 등 합리적 資源配分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이 미진했다. 대다수 석유 수출국의 에너지 및 상품가격은 적절한 機會費用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비를 조장하는 바, 資源配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격정책이,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를 위한 새로운 과세 및 보조금 정책이 개발될 수 있다.

네째, 급속한 부의 축적과 함께 발생한 사회변화에 국민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石油收入 감소를 통해 소득증대속도를 둔화시켜 나

간다면 1970년대에 이룩한 혁신적인 변화를 흡수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다섯째, 70년대의 유가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달성불가능한 높은 소득수준을 기대했으나, 최근의 石油販賣量 감소와 함께 그들의 偏狹된 경제구조 및 資源不均衡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된다.

### 5. 石油수요 감소가 미치는 불리한 영향

石油資源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經濟成長率 및 資本蓄積率에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으므로, OAPEC/ENI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 본다. 여기에 나타난 특징은 첫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석유수요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重大하며, 둘째 쿠웨이트, UAE와 같이 석유자원

아랍諸國의 주요經濟指標

(單位: %)

區 分	1975~80	1983~90	1990~95
쿠웨이트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1.74	2.83	8.50
總資本形成증가율	2.41	1.42	4.60
리비아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7.00	1.60	3.19
總資本形成증가율	2.34	0.36	1.04
U A E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0.52	3.89	4.72
總資本形成증가율	9.82	4.21	3.50
사우디아라비아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2.79	3.94	4.69
總資本形成증가율	22.67	4.14	3.00
알제리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1.12	6.89	9.30
總資本形成증가율	7.98	6.01	7.51
이라크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2.61	5.06	0.39
總資本形成증가율	6.27	4.38	1.13
이집트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6.00	4.56	4.41
總資本形成증가율	16.13	5.25	6.84
시리아			
非石油部門GDP 증가율	17.30	5.35	7.02
總資本形成증가율	6.82	4.07	5.00

〈資料〉 Middle East Economic Survey  
(OAPEC/ENI)

으로 획득한 富의 國內吸收率이 낮은 국가는 이라크, 알제리와 같은 비교적 국내흡수율이 높은 국가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세계 이집트, 시리아와 같은 석유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석유수요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분명한 것은 1970년대에 달성했던 10~20%의 경제성장률은 비정상적이고 일부 환상적인 것이며, 향후 7개 아랍제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이다. 향후 이들 아랍제국의 효율적인 경제성장률은 6~8%로 假定할 수 있는데, 여기서와 같이 1985~1995기간에 이러한 수준이 達成될 가능성은 稀薄하다.

한편, 현재의 석유수요위기는 보다 넓은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현 위기가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보다 크게 나타나면 OPEC의 結束 및 油價決定力이 약화되어 국제정치무대에서 OPEC의 영향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 6. 맺는말

석유는 아랍세계의 중요한 財源으로서, 그 영향력은 아랍 전지역으로 빠져 있다. 석유시장의 사이클이 上昇週期는 15~20年, 下降週期는 10~15年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산유국은 惠澤과 손실을 동시에 입고 있다. OPEC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殘餘供給者로서의 役割을 재고해야 하며, 단순한 유가방어보다는 수요관리를 포함한 보다 정교한 유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유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경제개발의 목표와 페턴을 결정하는 것이다. 석유는 減耗되어 결국 사라진다는 點을 감안해서 최종의 목표라 할 수 있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

(에너지동향)

## □ 産油國動向 □

### 잇단 石油價格規制 撤廢

최근 석유가격의 규제철폐가 非OPEC 각국에서 잇달아 실시되고 있다. 美國은 이미 1981년 1월 1일에 가격규제를 완전 철폐했으며 英國에서는 작년말부터 자유화에의 징후가 나타나, 금년 3월에 BNO(英國石油公社)의 해체를 議會에서 발표함으로써 北海原油의 정부판매가격의 종식이 예고되었다. 또한 캐나다정부가 금년 6월 1일부터 석유가격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으며 濠洲정부도 가격규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석유의 가격규제는 서로 모순된 2가지 요구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꺾지 않을 만큼의 高價安定이 요구되며, 또 한편에서는 수요감퇴 및 인플레이의 저지를 위해 廉價安定이 요구된다. 이러한 균형은 에너지 및 경제정세가 안정적으로 변동될 때는 별로 문제없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러나 狀況이 급변하면 가격규제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규제를 수정하게 되고 결국 전면폐지를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실제로 70년대의 2회에 걸친 오일쇼크는 各國의 가격규제제도를 크게 흔들어 놓았으며 80년대에 들어 변화된 에너지정세는 각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폐지를 결의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져다 주는 利害는 각국마다 다르다. 英國의 경우는, BNO가 생산자로부터 구입하는 55만b/d(금년 7월 1일부터 자유화)의 가격이 Spot시장가격보다 高價格이었기 때문에 파탄을 가져왔던 것이므로, 가격규제철폐는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캐나다의 경우는 규제철폐로 인해 주로 東部の 소비지역은 Old Oil(1974년 이전 발전)이 3~6\$/B, New Oil이 평균 40\$/B 高價購入되므로 생산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